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서 경 현 [‡]	김 유 정	정 구 철	양 승 애	김 보 연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삼육대학교대학원 상담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이 타당한지, 아니면 탈 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인 성-포괄적 모델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341 명의 대학생(남: 156, 여: 185)이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만 18세에서 47세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개정판 갈등척략척도(CTS-2),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자기애성 성격 설문지(NPI), 욕구질문지(MNQ)이다. 분석 결과, 대학생 97%가량이 데이트 도중에 상대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상대에게 신체적 공격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는 여성이 더 많이 하였지만, 성폭력 피해는 여성이 더 많이 당하고 있었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 있는 사람이 미경험자나 가해 경험만 있는 사람보다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했다.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특히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군림성향도 데이트 폭력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설명력이 더 강했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변량을 16%가량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데이트 폭력, 성역할 고정관념, 자기애성, 군림성향,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 성-포괄적 모델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한 개인이 성장하여 때가 되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아 데이트를 하게 된다. 이 때 상대가 아무리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선호하는 것이 같지 않는데다가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종 상대가 자신의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난처하거나 당황해 하는 경험할 수도 있다. 이성관계가 언제나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 때때로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데이트 도중에 95%의 사람들이 상대와 의견 불일치나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Lanes & Gwartney-Gibbs, 1985). 그런데 데이트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에게 질투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심하면 폭력까지 행한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1년 Makepeace에 의해 결혼 전 연인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종류의 폭력이 ‘구혼기 폭력(courtship violence)’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주로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으로 통용되고 있다. 혼전에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 강도가 심해 남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강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초기 연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데이트 도중 발생하는 폭력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미 여러 사례들을 통해 밝혀졌다(서경현, 2001; Levy, 1990). 데이트 폭력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게 할 수도 있으며

불구를 만들 수 있고(Foshee et al., 1998),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FBI, 2000).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다(Campbell & Kendall-Tackett, 2004).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 혹은 네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데이트를 하면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데이트 도중에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이 9%에서 65%까지로 나타났다(Sugarman & Hotaling, 1989). 서경현(2009)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17개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 비율이 11.6%에서 52.4%로 그 양상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있다(Sabina & Straus, 2009). 그러나 연구에서는 어느 것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연구자들(Makepeace, 1981; O’Keefe, 1997)은 성적인 것을 포함해 신체적 공격성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어떤 연구자들(Laner & Thompson, 1982; Marshall & Rose, 1987)은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겁을 주는 행동 등을 일컫는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시켜 데이트 폭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데이트 폭력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데이트 폭력을 가해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설명으로는 Riggs와 O'Leary (1989)가 제안한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트 폭력을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부모 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하면 이후 여러 인간관계에서 폭력의 가해나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Bandura, 1977). Riggs와 O'Leary의 모델은 데이트 폭력에 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그 문제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다.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 제시하는 변인들은 전후관계성 변인과 상황적 변인으로 구분된다. 전후관계성 변인이란 개인이 가진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변인인 상황적 변인은 상황적 예측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후관계성 변인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부모의 자녀학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 자기에 대한 민감성 등이 포함되고, 상황적 변인에는 스트레스, 음주, 상대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에 따른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대부분이 Riggs와 O'Leary의 모델에서 제시한 변인들 위주로 수행되었는데,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나 부모 간 폭력 목격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집중되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Riggs와 O'Leary의 모델의 근간이 되는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가 학자들이 가정하는 만큼 강하지 않

다는 지적이 있고(Kaufman & Zigler, 1987),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2004)에서도 이 변인들 간에 공변하는 부분이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서경현, 2009; Stets & Pirog-Good, 1987; Riggs & O'Leary, 1996). 따라서 이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론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어이론(Control Theory)으로도 데이트 폭력을 설명한다. 제어이론은 폭력 행동이 학습되었다기보다 타고난 기질이라고 설명한다(Hirschi, 1969). Friedman과 Rosenbaum(1988)도 폭력과 같은 일탈적 기질은 유전된 인간의 본성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어이론에서는 세상에 한 가지 도덕 체계가 존재하고 이런 인습적 도덕체제를 벗어난 행동을 일탈행동으로 간주한다(Reiss, 1951). 이 이론에서는 인습적 행동에서 벗어나 일탈 행동을 사회결속의 문제로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데이트 폭력도 사회적 결속의 와해로 생각한다. 제어이론은 일탈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관계인 데이트 관계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연인과 관계하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서경현, 안귀여루, 2007)에서 데이트 폭력이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관계 방식이나 결속으로 데이트 폭력을 명료하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이 제어이론은 연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가부장적 문화가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행하는 폭력을 조장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Yllo, 1993). 가부장적 태도나 비대칭 권력구조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근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patriarchal/asymmetry paradigm)이다. Johnson과 Leone(2005)이 체계화한 이 패러다임에서는 상대에게 군림하거나 상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성 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조장한다고 설명한다. 일찍이 Russell(1976)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가치와 태도에 의해 남성의 폭력 행위가 조장된다고 보았다. 가정에서의 아내 학대가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Kurz, 1993)은 가부장적 사회였던 한국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데이트 폭력과 성역할 관념 간의 관계를 검증한 Lichte와 McCloskey의 연구(2004)에서 남성이 주도적이고 우세하며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신념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를 남성이 아닌 여성이 많이 당하고 있다는 점(서경현, 2001; Levy, 1990)도 가부장적인 문화와 비대칭적인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요소 혹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이 한국인의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에는 남성 우월주의와 관련된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의 주도권이나 권력 혹은 지위의 비대칭(asymmetry)이 폭력 행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패러다임의 기본이다. 관계에서의 비대칭으로 기울어진 권력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혹은 그것을 유지

하기 위해서도 폭력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Straus(1973)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권력구조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폭력 발생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의사결정에서 지배적일 때 쌍방 간의 폭력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가장 심했다. Kumagai와 O'Donoghue(1978)는 아내의 지배성향이 비대칭적으로 강한 권력구조가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데이트 관계에서도 의사결정 등에서의 권력 구조의 비대칭이 폭력의 가해나 피해와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가정하였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Hamel(2009)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조망과 치료전략을 설정하는데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탈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post-patriarchal/asymmetry paradigm)을 주장한다. Hamel은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대를 조정하려는 수준이 균등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포괄적 모델(gender-inclusive model)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성-포괄적 모델이란 이성관계에서의 폭력의 문제를 어느 한쪽 성에 국한하여 가해와 피해를 논할 수 없는 인간사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Hamel은 데이트 폭력을 이성적 판단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신체적 폭력 피해의 30%가량은 남성이 당하고 있다면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를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

명한다. 따라서 Hamel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란 대인관계 방식에 의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성 기술과 대인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해 여성과 피해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여 성-포괄적 모델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도중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행하는 빈도에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김예정, 김득성, 1999; 김유정, 서경현, 2009; Antonio & Hokoda, 2009; Henton et al., 1983), 심지어 여성이 더 자주 혹은 더 많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김동기, 사공은희, 2007; 서경현, 2004; 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여성에게서 높게 나온 것만으로 여성이 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이고 남성이 주로 피해자라고 학자들이나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 사례를 바탕으로 심각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의 폭력 가해는 상대의 폭력 가해에 대한 자기방어이거나 심리적 위협이나 성적 강요에 대한 신체적 표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서경현, 2001; Levy, 1990).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포괄적 모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인관계에서의 비대칭 요소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게다가 Hamel(2009)의 경우 그 자신이 실증적인 연구로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한 후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여러 조사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앞서 기술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 가해를 여성이 많이 한다는 것과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Hamel은 성-포괄적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가부장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뿐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군림성향이나 권력성향 혹은 특권의식까지 포함하여 검증하려고 한다. 개인이 가진 군림성향, 권력성향 혹은 특권의식과 같은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관계의 비대칭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특성이다(Raskin & Terry, 1988; Watson, 2005). 군림성향이나 권력성향 및 특권의식과 같은 자기에 성향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비대칭적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Hamel(2009)이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포괄적 모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성차를 분석하고 주요 분석을 성을 구분하여 수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을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이 남녀 사이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특권의식, 우월감, 군림하고자 하는 성향 혹은 권력의식 등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예방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위치한 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341명(남성 156명, 여성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47세($M=22.99$, $SD=3.54$)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29명(37.8%)이었고, 134명(39.3%)이 기독교(개신교), 36명(10.6%)이 천주교, 19명이 불교(5.6%)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두 명은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모든 참여자가 데이트 경험이 있었으나 이들 중 43.7%인 149명만이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이 사귀었던 평균 이성친구 수는 약 2.95($SD=2.16$)명이었다.

참여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으나 문항에 응답하기 전에 데이트 폭력에 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과 t 검증, 적률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이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에 의해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 Han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책략척도(CTS 2: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폭력(11문항), 신체적 폭력(7문항), 성폭력(4문항)을 2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폭력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에서 매우 자주 있는 것까지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리적 폭력을 묻는 문항들은 정서적 혹은 언어적 공격 행동을 측정하고, 신체적 폭력을 묻는 문항들은 신체적 공격 시도나 공격 행위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묻는 문항들은 원하지 않을 때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행동을 위한 위협이나 완력을 사용했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각 데이트 폭력 가해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0~.89를, 각 데이트 폭력 피해의 내적일치도는 .80~.90을 보였으며, 전체 폭력 가해 문항과 피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90과 .91이었다.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대학생들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중에 가정생활척도(20문항)와 사회문화생활척도(20문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본래 가정생활과 사회문화생활 외에도 교육생활과 직업생활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교육생활척도와 직업생활 척도는 제외시키고 가정생활과 사회문화생활에서의 보수적 성역할 고정

관념, 즉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점수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묻는 문항 중에 10문항, 사회문화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묻는 문항 중에 8문항은 역환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으며 사회문화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77이었다. 전체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87이었다.

자기애성. 권력성향이나 특권의식이 자기애성 성격의 특성이기 때문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기애성 성격을 본 연구의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자기애성 성격은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자기애성 성격 설문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자기애성 성격특성의 개인차를 측정한다. 강제선택형 5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였던 척도를 Raskin과 Terry(1988)가 4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이용하고 조정하는 경향이나 특권의식(entitlement), 권력 자적 특징(authority), 이기주의를 포함하는 우월감, 허영과 자기찬미(self-admiration)와 같은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강유임, 2002)에서 위 4요인에 포함된 30문항 중에 연구의 목적상 자기찬미 하위 척도 10문항을 제외하고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전체 척도가 .91, 특권의식이 .73, 권력성향은 .86, 우월감은 .73이었다.

군림성향. 타인에게 군림하려는 성향은 Steers

와 Braunstein(1976)이 개발한 욕구질문지(Manifest Needs Questionnaire: MN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Murray의 욕구이론의 대표적 욕구인 성취욕구, 권력욕구, 소속욕구 및 자율욕구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나는 남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와 같이 타인에게 군림하고 싶어 하는 권력욕구를 측정하는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한 문항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역환산하여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72였다.

결 과

대학생들이 경험한 데이트 폭력의 성차

대학생들이 보고한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참고). 우선 대학생이 이성친구 간에 행해지는 심리적 폭력의 경험 여부에는 성차가 없었다. 남녀 대학생 97% 이상이 이성친구에게 심리적으로 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96.2%의 남학생과 95.1%의 여학생이 이성친구에게 심리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심리적 폭력의 가해 수준이 남학생의 가해 수준보다 강했다, $t(339)=-2.51$, $p<.05$.

그러나 이성관계에서의 경험한 신체적 폭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 중에 44.2%가 이성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에 58.4%의 여학생이

이성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hi^2(1, N=341)=6.79, p<.05$.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보고한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339)=-2.20, p<.05$. 이성친구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도 여학생(37.8%)보다 남학생(49.4%)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으며($\chi^2(1, N=341)=4.58, p<.05$), 그 수준도 높았다, $t(339)=2.04, p<.05$.

한편, 이성관계에서 행한 성폭력에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하지만 이성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중에 11.2%가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에 27.6%의 여학생이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hi^2(1, N=341)=13.47, p<.001$. 또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보고한 성폭력 피해 수준도 유의하게 높았다, $t(339)=-2.33, p<.05$.

대학생의 군림성향, 자기애성 성격, 성역할 고정관념의 성차

군림성향, 자기애성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대학생의 군림성향, 자기애성 성격 그리고 가

표 1.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의 성차

변인	성별	남성(n=156)		여성(n=185)		χ^2	t
		%	M(SD)	%	M(SD)		
심리적 폭력 가해		97.4	20.97(7.68)	97.8	23.16(8.29)	.06	-2.51*
신체적 폭력 가해		44.2	8.22(2.25)	58.4	8.87(3.04)	6.79*	-2.20*
성폭력 가해		13.5	4.35(1.30)	11.9	4.30(1.00)	.74	.39
심리적 폭력 피해		96.2	21.06(8.56)	95.1	20.65(7.95)	.21	.46
신체적 폭력 피해		49.4	8.77(3.06)	37.8	8.16(2.44)	4.58*	2.04*
성폭력 피해		11.5	4.33(1.51)	27.6	4.72(1.59)	13.47***	-2.33*

* $p<.05$, *** $p<.001$.

표 2. 군림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의 성차

변인	남성(n=156)		여성(n=185)		t
	M(SD)	M(SD)	M(SD)	M(SD)	
군림성향	15.83(3.30)	15.58(3.37)			.67
자기애성	66.28(10.76)	62.28(11.18)			3.34***
특권의식	12.90(2.78)	12.77(2.92)			.44
권력성향	36.61(6.29)	33.64(6.48)			4.28***
우월감	16.76(3.00)	15.88(2.93)			2.76**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98.67(19.94)	89.21(14.73)			5.03***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43.55(10.68)	37.70(9.30)			5.41***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55.12(11.22)	51.51(8.28)			3.41***

** $p<.01$, *** $p<.001$.

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군립성향에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기애성 성격에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t(339)=3.34, p<.001$. 자기애성 중에서도 특권의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보다 남성의 권력성향이 강했으며($t(339)=4.28, p<.001$),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t(339)=2.76, p<.01$. 성역할 고정관념에도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t(339)=5.03,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역할에 있어서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더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자의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미경험자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만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데이트 폭력에서 언어폭력, 즉 심리적 폭력을 제외한 선행연구들이 많고 만약 심리적 폭력의 경험자를 포함시킬 경우 95%이상이 경험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경험 집단은 가해만 경험한 사람, 피해만 경험한 사람,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군립성향과 자기애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337)=12.11, p<.001$. 그런 차이는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모두에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가해와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가해

표 3. 데이트 신체/성 폭력 경험 여부에 따른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	경험 없음 ^a (n=123)	가해경험만 ^b (n=48)	피해경험만 ^c (n=31)	모두 경험 ^d (n=139)	F	사후분석 (Scheffe)
	M(SD)	M(SD)	M(SD)	M(SD)		
군립성향	15.57(2.82)	14.94(3.59)	16.10(3.66)	15.98(3.58)	1.37	
자기애성	63.59(11.25)	65.27(11.07)	62.19(11.61)	64.59(11.04)	.65	
특권의식	12.59(2.90)	13.29(2.54)	12.10(2.97)	13.05(2.87)	1.69	
권력의식	35.07(6.62)	35.15(6.81)	34.13(6.74)	35.08(6.42)	.20	
우울감	15.94(2.95)	16.83(3.00)	15.97(3.06)	16.46(2.99)	1.36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87.01(14.28)	91.31(14.70)	96.16(13.56)	99.49(20.50)	12.11***	a,b/d
가정 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37.24(8.36)	37.83(9.31)	40.13(6.39)	44.08(11.81)	11.64***	a,b/d
사회 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49.76(8.64)	53.48(8.15)	56.03(8.57)	55.41(10.90)	8.68***	a/c,d

*** $p<.001$.

경험만 있는 사람보다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했고,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나 피해 경험만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했다.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관계

남녀 대학생들의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표 4 참고). 남녀 모두에게서 타인에게 군립하고자 하는 성향은 자기애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군립성향은 자기애성 성격 하위요인인 특권의식, 권력성향 및 우울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군립성향과 자기애성은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관이 없었으나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여성의 군립성향과 자기애성은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상관이 없었고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군립 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대학생들의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남녀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5 참고).

타인에게 군립하고자 하는 성향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군립성향은 이성친구에게 향한 남성의 심리적 폭력($r(156)=.20, p<.05$)은 물론 신체적 폭력($r(156)=.30, p<.001$)과 성폭력($r(156)=.21, p<.01$)의 가해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그런 성향은 남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나 성폭력 피해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여성의 군립성향은 이성친구에 대한 심리적 폭력 가해($r(185)=.24,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성폭력 가해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85)=-.21, p<.01$. 한편 여성의 군립성향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관계가 없었다.

표 4. 군립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상관행렬

변인	군립성향	특권의식	권력성향	우울감
군립성향		.53***	.54***	.44***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16	.42***	.63***	.42***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27***	.14	.15	.15
	.19**	-.21**	-.19**	-.22**
	-.03	.33***	.16*	.21**
		.14	.02	.08

* $p<.05$, ** $p<.01$, *** $p<.001$.

주. 위는 남성($n=156$)의 상관계수이고, 아래는 여성($n=185$)의 상관계수이다.

남성의 자기애성 성격은 심리적 및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그리고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여성의 자기애성 성격은 성폭력 가해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특권의식($r(185)=-.17, p<.05$)과 우월감($r(185)=-.20, p<.01$)이 여성의 성폭력 가해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에 반해 남성의 우월감은 신체적 데이트 폭력($r(156)=.17, p<.05$)과 성폭력 가해($r(156)=.20, p<.05$)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가해($r(185)=.20, p<.01$) 및 피해($r(185)=.27, p<.001$)와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성폭

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여성의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성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은 물론 성폭력과의 상관이 없었다. 한편 여성의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성친구부터의 심리적 폭력 피해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r(185)=-.24, p<.01$.

데이트 상대에 대한 심리적 공격은 제외하고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군림성향,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요인 및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6 참고). 데이트 폭력에서 언어적 폭력 혹은 심리적 폭력을 배제하고 수행된 선행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만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분석도 성별을 나누어 수행되었다.

표 5. 군림성향, 자기애성 성격 및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간의 상관행렬

변인	심리적 폭력 가해	신체적 폭력 가해	성폭력 가해	심리적 폭력 피해	신체적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군림성향	.20*	.30***	.21**	.14	.22**	.19*
	.24***	.13	-.21**	.13	.00	.02
자기애성	.28***	.16*	.14	.22**	.09	.13
	.05	.01	-.17*	-.06	-.08	-.09
특권의식	.18*	.18*	.13	.16*	.15	.11
	.01	.00	-.17*	-.11	-.13	-.10
권력성향	.28***	.12	.09	.22**	.04	.08
	.09	.03	-.12	-.03	-.03	-.06
우월감	.23**	.17*	.20*	.18*	.10	.18*
	.00	-.04	-.20**	-.07	-.09	-.10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34***	.38***	.17*	.23**	.36***	.19*
	-.02	.11	.20**	-.13	.08	.27***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30***	.40***	.21**	.18*	.33***	.25**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31***	.30***	.09	.25**	.33***	.10***
	-.07	-.04	-.05	-.24**	-.13	.05

* $p<.05$, ** $p<.01$, *** $p<.001$.

주. 위는 남성($n=156$)의 상관계수이고, 아래는 여성($n=185$)의 상관계수이다.

남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는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beta=.40, p<.001$)과 군림성향($\beta=.25, p<.001$)이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15.9% 가량 설명하였고 군림성향은 추가적으로 6.1%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는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군림성향이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설명력이 남성의 경우보다 강하지 않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는 군림성향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1, p<.01$),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유의한 예언변

인이었다, $\beta=.19, p<.05$.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beta=.46, p<.001$)과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beta=-.24, p<.01$) 모두 여성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성의 성폭력 가해 변량의 18.2%를 설명할 수 있었다.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beta=.33, p<.001$)과 군림성향($\beta=.17, p<.05$)이 남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 변량을 11.2% 가량 설명하고 있었다.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모두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변량을

표 6. 남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군림성향, 자기에성 성격,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성별	예언변인	β	t	R^2	ΔR^2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남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40	5.40***	.159	-
		군림성향	.25	3.46***	.220	.061
	여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21	2.84**	.042	-
		군림성향	.20	2.74**	.080	.038
데이트 성폭력 가해	남	사회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17	-2.18*	.104	.024
		군림성향	.21	2.72**	.046	-
	여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19	2.38*	.080	.034
		사회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46	5.32***	.134	-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	남	사회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24	-3.26**	.182	.048
		군림성향	.21	2.72**	.046	-
	여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33	4.40***	.112	-
		군림성향	.17	2.18*	.138	.026
데이트 성폭력 피해	남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25	3.42**	.060	-
	여	사회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27	-3.53**	.120	.060
데이트 성폭력 피해	남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25	3.22**	.063	-
	여	가정생활 성역할 고정관념	.38	5.47***	.141	-

* $p<.05$, ** $p<.01$, *** $p<.001$.

6.0%가량 설명하고 있었고($\beta=.25, p<.01$),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추가적으로 6.0%를 설명하였다, $\beta=-.27, p<.01$.

남녀 모두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만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고 있었다.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는 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6.3% 정도를 설명하는데 비해 여성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14.1%를 설명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성-포괄적 모델이 적합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의 성차와 데이트 폭력과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군집성향, 자기애성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데이트 폭력 경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보고된 심리적 폭력의 가해 경험 비율이 97%를 넘었고, 두 명 중 한 명이 신체적 폭력을 가해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 중에 심리적 폭력 가해 비율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던 김정란과 김경신(1999)의 연구(97.9%)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심리적 폭력까지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에 포함시켜 연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공격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엄연한 폭력이지만 성적인 것을 포함해 신체적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서경현, 2002; 서경현, 2009, Aizeman & Kelley, 1988; Makepeace, 1981; O'Keefe, 1997). 본 연구에서도

회귀 분석에서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를 구분할 때는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만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공격의 전조일수 있기 때문에(이영숙, 2005; Lloyd, Koval, & Cate, 1989), 일부 선행연구들(김예정, 김득성, 1999; 정혜정, 2003; 김동기, 2009; Laner & Thompson, 1982)처럼 신체적 폭력과 구분하여 심리적 폭력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데이트 폭력의 가해보고 비율이 여성에게서 높았고 피해보고 비율은 남성에게서 높았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도 있었다. 서경현(2009)이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의 성차를 분석한 17개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4개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13개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가해 보고를 더 많았다. Hamel(2009)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남성의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포괄적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가해와 남성이 피해 비율 높다는 것만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동일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가 상당 부분 상대의 폭력에 방어의 수단이라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이영숙, 2005; Molidor & Tolman, 1998), 강도 높은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들도 많았다(김예정, 김득성, 1999; Archer, 2000; Hird, 2000).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폭력 가해나 피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반응성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 폭력 사용의 금기시 되는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그런 질문에 반응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런 반응성의 기미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는 여학생이 더 많이 보고한 것은 남성들이 자신이 행한 성폭력에 관해 보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인에서는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이 유독 많았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가부장적인 요소가 없다고 결론짓거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성-포괄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비대칭 요인인 군림성향, 권력의식 등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서론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한국 남성들 중에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여성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여성보다 남성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감도 더 느끼고 있었으며 권력 성향도 강했기 때문에 가부장적 성역할을 단지 남성이 선호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성이 더 우월감을 느끼고 권력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부장적 환경 요소가 잔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

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강한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였다.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만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의 경우 가해 혹은 피해의 정도가 강한 사람일 수 있다(서경현, 2008). 약한 수준의 신체적 공격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방부터 방어적 공격을 유발하지 않지만 강도가 심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부터 방어적 공격을 당하기 쉽다. 또한 강도가 약한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방어적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가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의 가해자와 심각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Felix & McMahon, 2006). 그렇다면 심각한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의 발생에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 경험 집단 간에는 남녀 간 권력의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림성향이나 특권 의식, 권력의식 및 우월감 같은 자기애성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남녀를 나누어 군림성향 및 자기애성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군림성향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신체적 폭력 피해와도 상관이 있었다. 군림성향은 남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으며, 남성의 성폭력 가해 변량을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군림성향은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남녀 간 권력의 비대칭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신체적 데이트 폭

력과 성폭력 가해 혹은 피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다. 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16%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서경현, 2004)에서 나타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의 설명력보다 더 강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가부장적 신념이 데이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남성 지배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와도 상관이 있었다. 이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도중에 폭력을 가해하는 갈등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도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생활에서의 여성의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가졌을 경우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지만, 남성 우월성을 인정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트 도중 신체적 혹은 성적 공격을 덜하고 상대적으로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덜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Hamel(2009)이 탈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을 주장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성-포괄적 모델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 폭력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데이트 폭력 가해 혹은 피해가 단순히 특권의식이나 권력성향, 그리고 우월감 같은 개인의 자기애성 성격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더 잘 설명되었다. 게다가 타인에게

군림하려는 성향도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데이트 폭력을 더 잘 설명하지는 못했다. 물론 군림성향과 자기애성이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독립적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남성이 사회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군림성향과 자기애성도 강했으며, 여성이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군림성향과 자기애성은 약했다. 하지만 군림성향과 자기애성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공변하는 부분이 5%정도였다. 남녀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각 개인이 나름대로 권력의 균형을 꾀하려는 가운데 생기고 폭력도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볼 때(Kumagai & O'Donoghue, 1978),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군림성향, 특권의식, 권력성향 및 우월감보다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설명력이 더 컸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의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연구로는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정적 관계가 남성에게서 뿐 만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발견된 점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그런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추후에는 그 관계 방식에 더 집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정생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생활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유임(2002). 청소년의 자기애와 대인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 213-239.
- 김동기(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 135-159.
- 김동기, 사공은희(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 99-124.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3-44.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한가정학회지*, 37, 187-211.
- 김유정, 서경현(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383-402.
- 서경현(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 91-104.
- 서경현(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 21-39.
- 서경현(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699-727.
- 서경현, 안귀여루(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 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77-95.
- 이영숙(2005).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 49-61.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 73-91.
- Aizeman, M., & Kelley, G. (1988). The incidence of violence and acquaintance rape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305-31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tonio, T., & Hokoda, A. (2009). Gender Variations in dating violence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among Mexican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4, 533-545.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Campbell, J. C., & Kendall-Tackett, K. A. (2004). Intimate partner violence: Implications for wom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K. Kendall-Tackett (Ed.), *Handbook of Women, Stress and Trauma* (p. 256). New York: Brunner/Routledge.
- Cate, R. M., Henton, L.,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FBI (2000).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9.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elix, E. D., & McMahon, S. D. (2006). Gender and multiple forms of peer victimization: How do

- they influence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 707-724.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Arriaga, X. B., Helms, R. W., Koch, G. G., & Linder, G. F. (1998). An evaluation of Safe Dates, an adolescent dating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45-49.
- Friedman, J., & Rosenbaum, D. P. (1988). Social Control Theory: The Salience of Components by Age, Gender, and Type of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 363-381.
- Hamel, J. (2009).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8, 41-59.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1), 69-7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hnson, M., & Leone, J. (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timate terrorism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Family Issues*, 26(3), 322-349.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umagai F., & O'Donoghue, G. (1978). Conjugal power and conjugal violence i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9, 211-222.
- Kurz, D. (1993). Physical assaults by husbands: A major social problem.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Laner, M. R., & Thompson, J. (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 384-388.
- Lanes, K., & Gwartney-Gibbs, P. (1985). Violence in context of dating and sex. *Journal of Family Issues*, 6, 45-59.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344-357.
- Lloyd, S, Koval, J., & Cate, R.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127-142.
- Makepeace, James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14-18.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an*, 4, 119-134.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eiss, A. J. (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6-207.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ussell, L. M. (1976). *The Liberating Word: A Guide to Nonsex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 667-682.
- Steers, R. M., & Braunstein, D. (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51-26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3).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 105-125.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p. 3-33).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Watson, P. J. (2005). *Complexity of narcissism and a continuum of self-esteem regulation*. In M. Maj, H. S. Akisal, J. E. Mezzich, & A. Okasha (Eds.), *Personality disorders* (pp. 336-338). New York: Wiley.
- Yllo, K. A. (1993). Thr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and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원고접수일: 2010년 7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0월 31일

게재결정일: 2010년 11월 1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4, 781 - 799

The Appropriateness of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and Gender-Inclusive Model of Dating Violence

Kyung-Hyun Suh · Yoo-Jeoung Kim
Sahmyook University

Seung-Ae Y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Goo-Churl Jeong
Chung-Ang University

Bo-Youn Kim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and gender-inclusive model (post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in dating violence. The participants were 341 college students (156 males and 185 females) who had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whose ages ranged from 18 to 47.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Straus'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and Manifest Needs Questionnaire (MNQ). Result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97% of students reported the experience of inflicting psychological violence toward their dating partners, and almost half of them had the experience of inflicting physical dating violence. Females reported more frequently experience of inflicting physical dating violence than males, whereas they were more frequently received sexual dating violence than males did. People with experience of both inflicting and receiving of dating violence showed higher patriarchal sex role stereotypes than those who never experienced it and the only inflictors. Patriarchal sex role stereotypes were especially closely related to males' inflicting and receiving of dating violence. Although need for dominance was also predictor of dating violence, patriarchal sex role stereotypes was more determinant for dating violence. Sex role stereotypes in family life, for instance, accounted for the almost 16% of the variance of males' inflicting physical dating violence. This study revealed the appropriateness of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for dating violenc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eywords: dating violence, gender stereotypes, narcissism, need for dominance,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gender-inclusive model